

나주시, 우수 농식품 미국·베트남 해외시장 공략

유관기관과 협력...수출상담회에서 150만 달러 수출 협약 북미·동남아·아프리카 등 판로 확대...진출 가능성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품평·수출상담회에서 미국과 베트남 등 바이어와 총 15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 지역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나주시 우수 농식품 품평·수출상담회’에서 15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MOU)이 체결됐다. 한화로 약 20억원 규모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우수 농식품의 국내외 유통망 진입을 돕고,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전남식품수출협회가 협력했으며,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 지역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지역 농식품 가공·수출업체 26곳과 국내 유통사 상품기획자(MD), 해외 바이어 등이 참여해 제품 품평과 1대1 수출·유통 상담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NS홈쇼핑과 우체국쇼핑, 농협유통 등 유통사들이 지역 농식품의 상품성과 시장성, 유통 가능성을 살펴보고 입점 및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에서는 오스트리아 판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위, 베트남 JM GROUP, 남아프



강상구 나주부시장 (왼쪽)이 미국, 베트남, 남아공 바이어와 총 15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리카공화국 한국트레이딩 등의 바이어가 참여해 나주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미국 위와 100만달러, 베트남 JM

GROUP과 30만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트레이딩과 2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지역 농

식품의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협약이 실제 수출과 장기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와 바이어 간 후

속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바이어 발굴과 해외 유통망 확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수출과 내수 가격 안정,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지원을 비롯해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및 현지 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농수산식품 수출 직불금 등을 통해 지역 농식품 기업과 농가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상구 시 부시장은 “이번 상담회에서 15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나주 농식품의 품질과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협약이 실질적인 수출과 장기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한철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대비 지역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청

순천, 코스트코 입점 대비 지역상생협의체 출범

상권 피해 최소화·상생협력 방안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 대비 지역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의 보호와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위원은 소상공인, 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 관계자, 소비자·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의 및 행정 관계자 등 총 21명이다.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코스트코 입점 추진현황,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상품·지역기업 판로지원, 지역고용, 금융지원, 지역사회 공헌, 공동 상권활성화 등 7대 분야의 상생협력 과제가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화 and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역경제 기여방안, 타 지역 상생사례 검토 및 현장 중심의

조사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제시된 의견을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추가 보고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스트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2027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협약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서에 반영한다.

손훈모 시장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 상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장세일 영광군수, 산물벼 매입 현장 격려

공공비축미 등 3만8607t
고품질 영광쌀 유통 노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올해 산물벼 매입 현장인 영광통합RPC(영광RPC·백수RPC·서영광DSC)를 방문해 매입 관계자와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벼 매입량은 공공비축 8607t과 영광통합RPC 자체 매입 3만t 등 총 3만8607t이다.

공공비축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개 품종이며, 영광통합RPC 자체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진상2호 3개 품종이다.

공공비축 산물벼는 오는 30일까지 영광통합RPC(영광, 백수, 서영광, 굴비골)에서 매입하며, 건조비는 11월부터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통해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매입 품종이 아닌 벼가 20% 이상 혼입된 경우나 친환경 벼 잔류농약 검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출하 품종을 준수하고 잔류농약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장세일 영광군수가 산물벼 매입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격려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한다.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6만원·40kg)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수확기인 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매입가격을 확정 후 지급할 계획이다.

영광통합RPC 자체매입 가격은 별도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장세일 군수는 “2026년산 벼를 재배한 농가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친환경 벼는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전량 매입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고품질 영광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광양, 민선 9기 시청 운영 방향 구체화

13개 분야 100대 공약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민선 9기 시청 비전 실현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13개 분야 100대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100대 공약은 광양대선환위위원회에서 채택·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소관부서별 검토와 공약 보고회, 시민 공약이행평가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합과 사업 내용 조정 등을 통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였다.

확정된 100대 공약은 산업·경제, 청년·일자리, 철강·항만, 첨단산업·에너지, 복지·의료, 문화·관광, AI 등 시청 전반을 아우르는 13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지역확대 확대 및 기업참여형 지역소비 선순환, 기업유치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

업이 포함됐다.

철강·항만 분야에서는 광양제철소 리뉴얼 기반 철강산업 재부흥, 북극항로 시대 동북아 거점항 육성, K-컨테이너 세계 생산기지 유치, 국제 카패리 및 크루즈 항로 개설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복지 분야에서는 광양살이 첫걸음 청년 세아하우스, 광양시 24시 율케어 육아돌봄센터 설치·운영, 365 의료안심도시 광양 등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청년 정착과 복지·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인다.

시는 확정된 100대 공약을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 일정과 이행목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해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박성현 시장은 “민선 9기 100대 공약은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약속이다”며 “실행 가능한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보성,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생계형 체납 복지서비스 연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사회의실에서 이상철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보성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20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군은 10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부서의 읍면의 협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과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납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과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체납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에 따른 대응을 강화한다. 단순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와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영암, 신혼·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내달 13일까지 지원사업 30가구 모집... 최대 54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 540만원 덜어 주는 ‘2026년 영암 우리집 이자잔치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

군비 100%를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영암군 주택

에 입주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 비속 모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뒀어야 한다.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가구는 지원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전세 입주 가구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군은 대출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11월 13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에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청년과 인구정책팀 (061-470-2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혜성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식 기자 hck1342@gwangnam.co.kr